

야당 대표들 조문 발길 이어져

미래당 손학규·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 빈소 찾아 이해찬 대표 오늘 발인 미사 참석...여당 정치인 조문 자제

문대통령 모친 빈소 표정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 30일 야당 대표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여당 관계자들과 전·현직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조문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야당 대표들 조문 잇따라=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차례로 빈소를 찾아 고인을 기렸고, 이날 밤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조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정치인들의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고 있으나,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우선 이날 오전 10시 15분께에는 평화당 정 대표가 박주원 수석대변인과 함께 빈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오전 10시 45분께 조문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

에게) '훌륭하신 어머니를 여의시고 애절한 심정이 크실 것 같다. 위로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문을 했다"고 밝혔다. 오후 1시 25분께에는 바른미래당 손 대표가 장진영 비서실장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손 대표는 20여분간의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국민을 통솔하는 대통령이신 만큼 개인적인 아픔을 참삼키며 훌륭히 상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나는 대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후 2시 30분께에는 정의당 심 대표가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도착했다. 심 대표는 조문 후 기자들을 만나 "슬픔에 잠긴 문 대통령께 위로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말씀 드렸다"며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여당 정치인-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발길 돌려=야당 대표들과는 달리 여당 정치인들은 조문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15분과 이날 오전 7시 등

두 번이나 남천성당을 찾았으나 조문하지 못했고,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역시 성당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조문하러 왔으나 돌아가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천성당 인근에 관사를 둔 오거돈 부산 시장도 출근길에 남천성당에 잠시 들어가긴 했으나 조문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근조 화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근조 화환도 이날 오전 도착했다. 문 대통령 측에서 정중히 사양하면서 화환은 다시 차에 실려 되돌아갔다. 일부 시민들도 조문 요청을 했지만 역시 "가족장으로 하기로 했다. 유족의 뜻을 이해 바란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결국 현재까지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야당 대표들만 조문을 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날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이날 오후에 빈소를 찾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1일 열리는 발인 미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서 생각이 잠겨 있다. /청와대 제공

주한 외교사절들도 애도 메시지

주한 외교사절들도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빈소를 찾거나 애도 메시지를 전하며 고인을 기렸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 대사가 강 여사 빈소를 차례로 찾았다. 추귀중(邱歸中) 중국대사와 안드레이 콜릭 러시아대사, 나가미네 아사마사(長嶺安政) 일본 대사,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

가 이날 잇따라 빈소를 찾았다. 조문은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대사 순으로 진행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네 대사는 5시 55분께 함께 빈소에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대사관에서 조문하겠다고 해 대통령이 외교사절 조문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한 사람씩 조문을 받은 뒤 서서 상당히 오랫동안, 한 사람당 5분 정도씩 대화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해리스 대사를 비롯한 여러 외교사절이 온라인에도 추모 메시지를 올렸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면서 "고인은 의미 깊은 역사와 큰 족적을 남긴 훌륭한 분이였다"고 밝혔다. 마이클 대나허 캐나다대사도 트위터에 "저와 제 아내 스테파니, 그리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 직원 모두를 대표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문 대통령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적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금강산관광 이대로 끝낼 수 없다...개별 관광 추진”

금강산관광 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 2개월 이내 관광객 모집

금강산관광 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이하 범도민운동본부)가 30일 전국 규모의 관광객을 모집해 금강산 개별관광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범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개별관광 희망자들을 모아 이른 시일 안에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겠다"며 "2개월 이내에는 전국 규모의 관광객을 모집해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북한 당국은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이 이뤄져 남북 간 협력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범도민운동본부는 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재개범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전국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윤 범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기에 유럽 등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중국 관광객 120만 명이 다녀갔고, 정부가 밝혔듯 우리 국민의 관광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국민의 염원을 모아 방북단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월 미국을 방문, 미국 의회

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를 찾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강산관광 재개 해법과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개별관광은 신변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북과 협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변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금강산 시설 철거를 지시했으나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남북 동포들이 오갔다면 언제든지 지환영할 것"이라며 민간 차원의 방북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의향 광주’에 무궁화동산 조성

3·1운동, 임정 100주년 맞아 시청 ‘평화의 소녀상’ 옆에

‘의향 광주’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됐다. 광주시는 30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청사 내 ‘평화의 소녀상’ 옆 1700㎡(500여평) 부지에 무궁화 동산 조성 식재행사를 했다. 이날 식재행사에는 이용섭 시장, 김익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휘국

시교육감, 강성명 광복회 광주전남연합회지부 국장, 지역 사회 단체 관계자 및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동산 조성은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관심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과와 반성 없이 역사 왜곡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행태에 광주시민이 단호히 맞선다는 의미를 담았다. 식재 장소는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울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공간인 ‘평화의 소녀상’ 주변으로 정하고,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 세계평화와 희망을 승화시키는 의미에서 아름답게 날갯짓하는 ‘나비의 문양’으로 식재 컨셉트를 설정했다. 광주시는 무궁화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가을철 식재적기에 무궁화 심기 행사와 조성을 완료하고, 시민들이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나라사랑 교육의 장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최순실 “저는 ‘비선실세’ 아니다”

박근혜-손석희 증인 신청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열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발인 기회를 얻어 “유지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

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딸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등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앞선 판결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인근과 법리오해를 모두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강요 등 혐의를 넘어 뇌물수수, 직권남용관리 행사방해 등도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묵시적 공모를 인정했

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니 직권남용 관리 행사방해 등으로 처벌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 사건에서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없고, 뇌물을 제공한 측 또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받은 바가 없다”며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많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랐어야 하는데 반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8일로 예정하며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서구 마름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은 5억2천
- 신안군 안좌면 자리리 576㎡ 투자에도 좋은 2200만원
- 정충군 안양면 기산리 땅 891㎡ 주택·청고 137㎡ 전방 좋은 2억5천
- 곡성군 옥곡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좋은 1억9천
- 금매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 건너편 680㎡ 전원생활합 3300만원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신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발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농장 적합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959㎡ 전원생활에 좋은 2억9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광천파출소 건너편 준주거 1259㎡ 병원 등 다용도 76억
- 나주시 다시면 광막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설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은 1억3천

▶ 상가 건물

- 안양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안양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6㎡ 매일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진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특급 물건

- 원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양양시절 영령 병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 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경망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연수,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비밀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수료 무임제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 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의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2020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향상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국제 수행으로 산학관 연구네트워크 구축
- 용·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주요 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작성)	2019. 11. 11.(월) ~ 11. 25.(월)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19. 11. 11.(월) ~ 11. 25.(월)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일시	2019. 12. 4.(수) 10:00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19. 12. 20.(금) 11: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진환경농업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